

## 북부전역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당풍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한 일대 사변

김 희 진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주체105(2016)년은 우리 당이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의 북변땅에서 또다시 천지개벽을 펼친 뜻깊은 해였다.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 6개 시, 군들에 1만 1 900여세대의 3층, 5층살림집들과 단층살림집들, 100여동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진료소들이 불과 60여일만에 새로 일떠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 펼쳐졌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펴고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들의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이었으며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다시금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었다.

북부전역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인민사랑,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사가 펼친 빛나는 현실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도지구들에 대한 피해복구전투에서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짧은 기간에 기적적승리를 안아왔습니다.》

북부전역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우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었다.

주체105(2016)년 8월말 우리 조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 불어치고 쏟아져내린 돌풍과 무더기비는 해방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보는 것이었다.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 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되었으며 이것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의 전례없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고있는 때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예상치 않았던 난국이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

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에 확실한 피해후과를 가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시려는 확고한 결심으로부터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주력부대들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급파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살림집건설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가장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으며 온 나라 200일전투참전자들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이 조치는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로씨야의 따쓰통신과 인디아의 NDTV방송,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은 피해복구전투에 관한 조선의 조치는 세상사람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작전에 따라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 개시되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고 국가의 모든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총발동된 치렬한 건설대격전이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조국의 북변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피해복구전역마다에서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의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전투장들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다.

인민군대의 최정예부대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파괴된 기동로부터 개척하고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맡아 분초를 다투는 전격전, 립체전을 벌림으로써 당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혁명적당군, 조국보위전에서도 인민사수전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완벽한 실전능력을 남김없이 펼치였다.

려명거리건설돌격대와 922건설돌격대, 618건설돌격대, 216사단을 비롯한 건설주력부대들과 함경북도의 시, 군돌격대들은 재난이 휩쓴 대지에 대건설의 불야경을 펼치고 찬바람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백열전을 벌려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하는 리상촌들을 일떠세웠다.

경흥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주체105(2016)년 10월 말 살림집완공의 첫 승전포성을 울린데 이어 11월 11일까지 경원군, 회령시를 비롯한 북부전역에서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계속되었다.

한편 당중앙프락과 한시라도 빨리 혈맥을 이으려는 불같은 일념은 철길과 도로, 통신선들과 전력망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전투승리의 직선주로를 열어놓았다.

살림집건설과 함께 지대정리도 동시에 진행되어 불과 60여일만에 북변땅에 들이닥쳤

던 전대미문의 대재앙은 가셔지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는 두만강지구에서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유서깊은 백두산동부의 혁명전구들에 로동당시대의 만년요새를 쌓아올리는 격전속에서 군대와 인민이 사상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특히 북부피해복구전투의 핵심이 되고 주동이 되어 육탄으로 난관을 맞받아나간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로서의 체질화된 품모는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거대한 토양우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참으로 북부피해복구전투의 전과정을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고유한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으며 우리 당과 같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긍지높이 과시하였다.

북부전역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였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으며 해당 사회의 우월성과 위력은 자연의 횡포가 몰아온 재해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만남을 헤쳐나가는것은 자본주의가 가질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본태이며 한 마을, 한 지역이 당한 재난일지라도 온 나라가 일시에 떨쳐나 사랑과 인정의 대격전을 벌리는것이 자본주의가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사회주의의 영상이며 참다운 우월성이다.

북부지구큰물피해는 전해에 라선지구가 입었던 피해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원쑤들은 조선이 려명거리건설에 맥을 다 뽑다보니 년중에 복구를 끝낸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가 맥을 놓고 주저앉기를 고대하였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조국의 북변땅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북부피해복구는 단순히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가 아니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기 위한 일심단결옹위전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였다.

조국의 북변땅에 파견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의 혼연일체의 거대한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철도운수부문과 해운부문이 복구전투의 기관차가 되어 힘차게 내달리며 피해복구물자수송에서 최고기록을 련속 돌파하였다.

20여일만에 큰물피해지역의 파괴된 전구간의 철길을 개통하여 복구전투를 다그칠수 있는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은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수송실적이자 피해 복구속도라는 자각을 안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철도의 통과능력을 최대로 높여 세멘트를 비롯한 물자들을 북부전역으로 수송하였다. 해운부문의 일군들과 원산항, 홍남항, 청진항의 로동계급, 대형짐배들의 선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수십만t의 세멘트와 각종 건설자재수송을 중단없이 보장하였다.

북부전선의 야전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건재공업, 금속공업, 전력

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계급도 생산적양양을 일으켰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세멘트생산량을 종전보다 1.5배이상으로 끌어올려 당이 맡겨준 생산과제를 당이 정해준 기일안에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건재생산기지들에서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10월 중순까지 복구전투에 필요한 세멘트생산과제는 완수되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은 철강재생산을 늘이였으며 대동력기지들에서는 발전기들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었다.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 우리 당의 혁명관을 체질화한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어 항일의 원군, 원민전통이 창조된 두만강연안 북부지대에 선군시대 군민일치의 새 역사를 써나갔으며 온 나라 인민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혈육처럼 도와나섰다.

이처럼 북부피해복구의 나날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은 인민의 불행을 가시는것을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 국가의 고유한 생리와 사람들모두가 친혈육이 되어 진정을 기울이는 우리 사회의 생활윤리를 다시금 실증하였다.

지역적인 피해복구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힘이 집중되고 최단기간에 새 거리,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만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피해복구전투를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린 두만강연안의 천리산야에 억년 드눌지 않을 사회주의뿌리가 더욱 깊숙이 내리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는것이 힘있게 확증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것은 북부피해복구전투과정에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만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실마리어 혁명적당풍, 전화위복